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오늘은 추수감사절 · 교회설립 제 6주년

넘치는 은혜, 풍성한 감사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6번째로 맞는 추수감사절이자 6년 전 이날 서울교회가 창립된 날이다.

교회는 추수감사절과 교회설립제 6주년을 맞아 오늘 I, II, III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린다. 각 예배시간 중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함께 성찬식도 갖는다. 교회학교별로도 추수감사와 교

회설립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한편 10월 5일에 시작하여 지난 50일 간 진행해 온 97비전2000운동이 오늘로 막을 내린다. 비전2000운동의 승전보고 및 시상식은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 갖게 된다.

또 다음 주일 찬양예배 시에는 중 · 고등부와 대학 · 청년부에서 준비한 감사축제도 있을 예정이다. 



지난 50일 동안 진행되어 온 비전2000운동이 오늘로 막을 내린다. 사진은 비전2000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초등부의 어린이 초청전도집회 "어린이 순례자의 합창" 광경.

집사 25명 · 권사 70명 세워

찬양예배 시 안수식과 임직식 거행

제 4대 집사 안수식과 권사 임직식이 찬양예배 시 있다. 오늘 임직식에선 25명의 집사와 70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고 취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수집사는 모두 43명, 권사는 16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와 권사는 지난 6월

첫 주 공동의회에서 선출되어 15주 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과제물을 제출했으며 14일(금) 종합시험을 치르고 당회원 면접을 거쳤다.

오늘 임직을 받는 집사와 권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집사

김세재 김영주 김인수 김형택 나종영 맹선재 박두영 백수남 서춘식 신용식 안의경 오광환 오형철 우지원 유중관 이계홍 이병생 이상호 이승우 이완형 이태상 최용길 최형렬 한길동 홍정선

◆ 권사

강영자 강풍자 강희자 고윤희 권순단 권임정 김명숙 김묘순 김숙자 김연옥 김영연 김예환

김옥남 김용학 김용숙 김인숙 김정희 김현주 김혜자 남미희 박경희 박순자 박연순 박이준 박정순 박정옥 박정원 배영애 손재겸 송인순 송정희 안연섭 양순임 양옥자 양태영 원복순 유명석 유복환 윤갑숙 이규희 이수자 이순례 이영희 이용자 이은옥 이은희 이인선 이정자 이해순 임순자 장낙희 장대방 전완순 전용순 전정숙 전혜자 정봉금 정정숙 조삼원 조향영 최금자 최길옥 최향혜 최죽희 하정자 한정원 함은희 허정자 황 혼 황정임

권사회 둘로 나눈다

70세 기준 1·2 권사회로

권사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새 해부터 권사회를 연령별로 둘로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다. 제 1권사회는 만 70세 이상(1927년 이전 출생자), 제 2권사회는 만 70세 미만(1928년 이후 출생자)로 구성된다.

당회는 제 1권사회의 회장에 허인숙 권사를, 부회장에 최완 권사와 승영강 권사를 임명했으며, 제 2권사회 회장에 김증복 권사, 부



허인숙 권사
(제 1권사회회장)



김증복 권사
(제 2권사회회장)

회장에 이영자 권사와 우선자 권사를 각각 임명 발표했다.

이들은 12월 5일 권사회 총회에서 취임케 되며 권사회 총회엔 오늘 권사로 임직케 될 새 권사 70명도 함께 참여케 된다.

✦ 순례자 컬럼 ✦

감사하며 살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범사에 감사를 더하자.

좋았던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힘들었던 일도, 밝은 날들뿐 아니라 어두웠던 날들도 그리고 언제나 무엇든 감사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 우리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도 아니며 싫어했다고 해서 내게 해로운 것도 아니다. 싫든 좋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를 유익하게 해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후대하시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사건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날이 찬송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선 곳이 천국이 될 터이니 전전후 감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보자.



97 추수감사절 메시지



부스러기의 영광을 감사하자

이중윤 목사

받은 것만으로도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먹어야 할 떡을 집어 개에게 던져 준 것이라 하지 마시다. 실은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상 밑이면 어떻게 부스러기인들 어떻겠습니까. 그 발 밑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죽고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한없이 행복할 뿐입니다. 겨우 이것이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적은 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부스러기를 천하게 여깁니다. 더군다나 보리떡의 부스러기는 더욱 천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 떡이 크던 말던 축복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부스러기도 덩어리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뱃새다 잔디밭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하나 하나 바구니에 주워 담으시던 주님의 손은 오늘도 인생 부스러기를 거두어 주시기에 바쁘시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하게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부스러기 인생도 주님이 거두어 바구니에 넣어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할 뿐입니다.

“복되도다. 부스러기의 영광이여! 뒤라서 부스러기라고 천대할 것이며 작다고 버리겠는가.”

주께서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는 억지로 큰 자 되기를 바라지 말고 짐짓 부스러기 되기를 피하지도 마시다.

“주여 헤룟공에 놓여진 금 술잔이 되기보다는 주님의 바구니 속에 담긴 부스러기임을 더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리이다.”

서울교회 설립 제 6주년과 '97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배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며 우리 교회와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나라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이땅에 대풍을 주셨고 우리 교회엔 기도하던 건축허가를 받게 하셨으며 온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신실하고 충성스런 새 일꾼을 허락받고 성장을 거듭하게 된 것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 * *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주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했던 버림받은 한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는 오늘의 처지를 원망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습니다.

상 끝 말석에라도 앉게 된 것이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상좌에 앉았다가 말석으로 밀릴까봐 겁이 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좌로 추대되기를 은근히 바래서도 아닙니다. 좋은 자리는 양보하겠다는 미덕 때문은 더구나 아닙니다. 내게는 말석이라도 과분한 영광이며 황궁하기 때문입니다.

진수성찬이 아니라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나라의 본 자손들이 취할 것이지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으로 죄인된 수로보니게 여인같은 나에게 시마다 때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치 않고 살게된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 무슨 음식 타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중심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의 올해는 청지기수련회와 봄·가을의 교회학교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비롯하여 6월에 개최됐던 찬양대원세미나와 매월의 교사교육강좌 등 풍성한 배움의 장이 열렸다. 특별히 9월부터는 성경대학과 음악교실이 열려 많은 성도들이 평일에도 성경을 공부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올해의 100교회운동 결연현황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가 올해도 두 차례 개최됐다. 제 11학기는 3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복음과 상황”이라는 주제로, 제 12학기는 9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교회와 국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돌아보며 감사하며

○...교회설립 기념일을 맞이하는 오늘을 지난 6년간 잊지 못할 특별한 은혜들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는 날로 삼기 위해 지난 1년 간 주요 행사들을 돌아본다...○



▶신년, 부활절, 맥추절 등 절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고난에까지 동참하는 성숙한 삶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기념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6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진행한 흥해작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과제인 새 예배당 건축은 물질이 아닌 기도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은 성도들은 새벽마다 힘써 간구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새 예배당 부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둬지고 8월에 심의를 통과하고 10월 초 드디어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 복음 증거를 위한 사역들: 짝민음가정을 위한 '가족초청만찬'(좌), 네팔·몽골·캄보디아 목회자초청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중), 육사세례식(우)

◀민족복음화를 위한 농어촌100교회 지원운동을 올해도 계속했다. 개인과 전도회, 다락방, 각 기관 등에서 113개 농어촌 교회와 결연했고 장학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목회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7월 29일 ~ 8월 1일까지는 농촌봉사단이 자매교회인 신석교회로 파송돼 활동하기도 했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열린 바자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개최됐다. 성도들은 주의전을 짓는 영광스런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가장 귀한 것을 바쳐 이 일을 진행했다.

▶순간의 화합과 교제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 어린이날이던 5월 5일엔 '한글·한가족·한마음 축제'가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열렸다. 또 5월 30일 가정의 달을 전후 가족찬양대회를 제하기도 했다.



순례자'도 창간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원고 및 의견은 팩스: (02)516-9640 천리안: pek9 유니텔: popo0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순례길에서

성경대학 '아가반' 을 마치며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송두심 집사(1교구)

그리스도인이 된 후 주님과 좀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갈망이 있던 차 아가서를 공부할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열강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0주간 함께 공부한 믿음의 형제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라고 계속 부르는 주님의 음성 “그 이름을 입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하)”하신 향기로운 이름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가서를 배우고 나니 성도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로 비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그 누구보다 상대방을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로 찬미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하늘보좌까지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비길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전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 신부가 나만을 위한 신랑이기를 바랬듯이 내 어린 신앙도 나만을 위한 주님만이기를 바랬으나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주님처럼 나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피차 서로 사랑하는 신비적 관계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14:20)하신 말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전도회 임원 총회를 하고서

살같이 빠른 광음 주 위해 아끼리

권영옥 권사(8교구, 한나 2전도회원)

어느덧 1997년 한 해도 저물어가는 아쉬움을 느낀다. 오늘은 한나 2전도회 임원회의 올해 마지막 모임을 총회로 회장실에서 모여 먼저 예배를 드린 후 새해에 봉사할 임원진을 선출하였다. 천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시사 감당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열심히 일하자는 다짐이 있었다. 특별히 한나 2전도회는 모이는 데 힘쓰며 온 임원과 회원이 하나 되어 교회를 위해 눈물과 정성을 쏟아 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을 주님께 감사했다.

총회 후 다양하고 정성 어린 음식을 대접받은 후 우리들은 둘러 앉아 “하나님이 좋아 ~ 예수님이 좋아 ~ 서울교회 좋아 ~”라고 손뼉치며 노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더 알찬 결실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 예배당 건축에 한 모퉁이를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충만한 임원총회를 마쳤다.

1998년도 교회조직

당회는 1998년도 교회조직을 다음과 같이 확정 발표했다. 각 위원회의 일꾼은 12월 중 임명을 받게 된다.

▼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지도
기획위원회	이용선	
예배위원회	박철훈	김명현
찬양위원회	윤봉준	민영수
교육위원회	최종시	박귀환
교구위원회	정병무	이순환
전도위원회	김영준	김정현
선교위원회	홍정호	김정현
구제위원회	노문환	이성득
관리위원회	이남호	
재정위원회	오정수	
건축위원회	임광식	박철훈(부)
동산관리위원회	김태기	
인사위원회	김광신	

재정위원회 서기 김대호
회계 윤봉준, 성준경
감사 홍정호

▼당회 소속 기관

기관	담당	지도
출판국	이영기	김명현
장학회	나희주	박귀환
한국교회갱신연구원 (KIMCHI)	오정수 김상철	박귀환
권사회		김명현
스데반회		이성득

▼제직회

서기 서문석 부서기 김세재
회계 오정수 부회계 성준경
감사 홍정호

정초 ‘성경 통독사경회’ 개최

우리 교회에서는 내년 1월 2일(금) ~ 3일(토)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한다. 이는 1996년 추석 연휴에 가졌던 구약통독사경회에 이은 것으로 이번에는 이틀 동안 신약을 통독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교육위원회로 하면 된다.

내년 성경암송대회 범위 발표

내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1998년 10월 개최 예정)의 성경범위가 요한복음 14~16장으로 발표됐다. 한편 1996년도 암송대회의 범위였던 요한복음 17장은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참가자의 희망에 따라 암송대회 시 함께 외울 수 있다.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27일(목) 연복회 임원회, 28일(금) 총회선교위원회 모임을 갖는다.
- ◆ 김재훈·전여원 성도(10교구 길동다락방) 가정은 9일 독녀했다.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스데반회 회원과 김혜경 권사(타교회 출석) 가정에서 제공했다.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교육·선교·구제를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3. 새로 임직을 받는 집사와 권사를 위해
4. 새해에 수고할 각 부서 일꾼들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래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